

# 하루가 보내준 남편에게 보내는 헌사

한은미 | 번역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이라 생각된다. 그녀는 첫 소설 《빙점》으로 독자들의 너리에 자신의 이름을 단단히 각인시켜 주었고 이후에 발표된 수많은 소설과 종교에 세이 형태를 띤 자전적 수필집으로 고정팬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일본 작가 중 한 사람이다.

회개悔改한 인간의 전형을 보는 듯한 그녀의 삶의 여정은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해 주기도 했다. 그녀의 자서전을 읽다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녀의 남편 미우라 미쓰요(三浦光世)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 《남겨진 말》의 기획의도는 매우 특이하다.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책이 나올 때마다 남편 미우라 미쓰요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헌사獻辭를 써서 건네주었는데 그 헌사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내자는 의도로 출간된 것이라고 한다.

소설 《빙점》이 나왔을 때 그녀가 남편에게 보낸 헌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께서 제게 보내주신 남편 미우라 미쓰요님께 무한한 사랑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또 《길은 여기에》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너그럽고 성실한 사람인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라는 헌사가 적혀 있다.

무려 150여 개에 달하는 이런 식의 짙막한 헌사 모음이 이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사적私的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헌사들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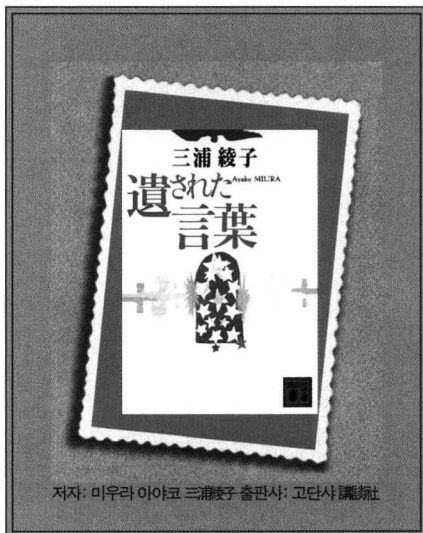
랑과 믿음에 뿌리를 둔 이들 부부의 영적 교류交流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남편을 일컬어 ‘영적인 스승’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영적 영감을 준 인생의 동반자로서, 또 오랜 병상생활 속에서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외조가 없었더라면 작가 자신은 물론 그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헌사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질 수 없음을 느낀다. 헌사 하나하나에 남편에 대한 그녀의 감사와 존경,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 책의 나머지 3분의 2는 그동안 어떤 책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는 글들의 모음이다. 주로 작가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과 말에 대한 글, 또 《빙점》과 같은 초기 소설들이 탄생되기까지의 배경설명과 더불어 짧은 단상모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글들이다.

1999년에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저자의 사후에도 꾸준히 유고집이 발표되는가 하면 그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추모追慕하기 위한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도 세워졌다.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추앙받는 한 사람의 문학인으로서 그녀는 아직도 일본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 같다.

이제 고인故人이 되어버린 그녀의 새로운 작품을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어서 일까, 그녀의 삶의 흔적 한 가닥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래서 더욱 국내에 소개되지 못한 채 묻혀 있는 많은 작품들과 유고집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



저자: 미우라 아야코 三浦綾子 출판사: 고단샤 講談社

원저: 미우라 아야코 三浦綾子

# ''정녕 평화란 무엇인가?''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 누군가가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자마자 침입자는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당하게 소리친다. "여긴 내 집이야.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

《마틸다 엄마의 일기》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결혼해 팔레스타인에서 세 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 미국여성의 일기를 모은 책이다. 저자 앨리슨은 10여 년 전, 일을 위해 이스라엘로 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용기 있게도' 미국이 아닌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다.

때로 책을 읽으면서 '공감'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책이 처음에 그러했다. 비슷한 경험이 없었기에 그녀가 얘기하는 고통과 눈물이 내 가슴 속 깊이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상상만으로도 이 거리가 많은 부분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 시작은 '만약'이었다.

만약, 천 년 동안 내 선조와 내 민족이 살아왔던 땅에 누군가 침입하여 그것을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내 집을 부수고,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죽인다면. 만약, 한밤중에 내 집 바로 위로 아파치 헬기와 F16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언제 내 집이 폭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매일 밤잠을 설쳐야 한다면. 만약 나의 딸이, 내 조카가, 내 남편이 한국사람이라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을 다녀오다가 저격수의 총에 맞아 불구가 되고 목숨을 잃는다면... 그러나 또 '만약', 이러한 모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와 비인간적 참상을 그 어디에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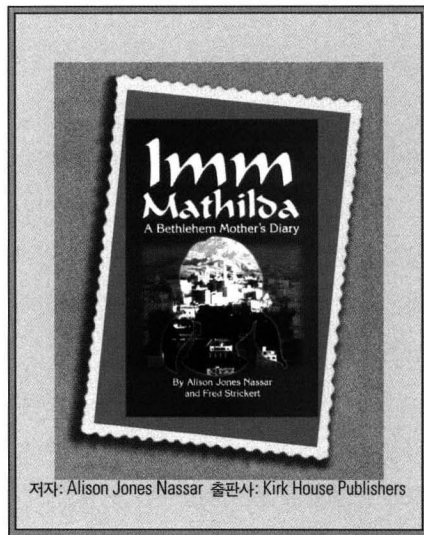
소할 수 없고, 내 민족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50년 넘게 지속되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 미래가 절망으로만 가득하다면...

앨리슨은 일기에서 수차례 단언하고 있다. '내 집이 하루아침에 불도저에 헐리고, 내 딸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죽는다면... 난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폭탄을 내 몸에 두르고 예루살렘의 버스를 탈 것이다' 라고. 팔레스타인 남편을 둔 아내로서, 세 딸의 엄마로서 저자의 글은 일면

감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감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표현될 수 없는 것일 게다. 그럼에도 저자는 놀랍게도 불안, 공포, 증오, 분노, 좌절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반유대도, 반미도 아니다. 그녀는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친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녕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지금 당장 탱크와 전투기들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철수시켜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당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여겨라. 그들도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분쟁의 가해자가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시대 등 그 어떤 나라보다 굴곡 많은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 티베트와 같은 약소국의 인권유린 참상에 무관심하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종, 국가, 경제력을 뛰어넘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인간이 늘 갈구해왔던 공존과 평화의 시작이다. 이 책은 좁은 삶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그 기본적인 진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김민**

원제: Imm Mathilda - A Bethlehem Mother's Diary



저자: Alison Jones Nassar 출판사: Kirk House Publishers

# 바람직한 식품 선택을 위한 5,000여 먹거리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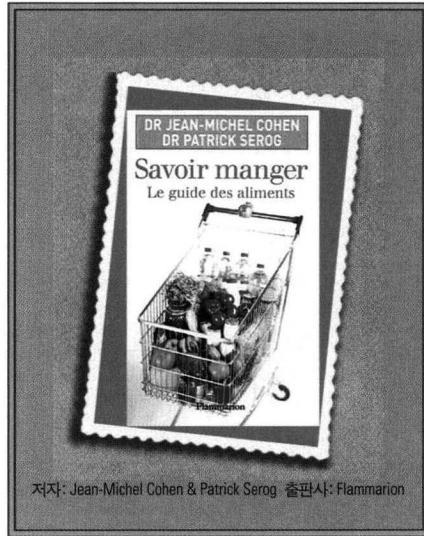
## 친절하고 명확한 분석

슈퍼마켓의 매대 앞에 설 때마다 주부들은 어지럼증과 함께 고민에 빠진다. 저렇게 많은 물건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요란한 광고와形形色색의 자태로 우리를 부르는 상품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특히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을 선택해야 할 때 주부의 고민은 배가된다. 가격과 맛 그리고 하루하루의 식단을 고려해 고를 수는 없다. 남편의 건강, 아이의 비만, 자신의 다이어트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식품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지뢰처럼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는다. 어떤 음식은 암을 유발한다더라, 어떤 식품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더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피부미용에 좋더라 등등...

이런 단편적이고 잡다한 정보들 말고 정말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는 없을까? 요즈음 프랑스의 주부들은 식료품을 사러 갈 때 한 권의 책을 장바구니에 넣고 슈퍼마켓에 간다.《Savoir Manger》는 장미셸 코엔과 파트릭 세록이라는 두 영양학자가 쓴 책으로 '알고 먹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책의 기획의도는 단순하다. "도대체 어떤 식품을 먹어야 살도 찌지 않고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다룬 책들은 프랑스에도 많다. 하지만 유독 이 책이 각광받는 것은 두 저자가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의 식품매장을 뒤지고 다니며 5,000 종의 식품, 50만 개의 상표를



저자: Jean-Michel Cohen & Patrick Serog. 출판사: Flammarion

원제: Savoir Manger - Le guide des aliments

조정훈 | 번역가

있다. 또한 참치는 100그램 당 140칼로리의 열량을 가진 반면 쇠고기라도 엉덩이살은 114칼로리, 송아지 고기는 94칼로리의 열량만을 가지고 있다. 요플레 제품도 상표에 따라 지방이 전혀 없는 제품에서 지방이 9그램이 넘는 제품까지 다양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식생활 속에서 단순히 칼로리가 높다 낮다, 당분이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등의 기준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식품 이름을 거론하며 통조림 제품은 먹을 만하나, 냉동 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시리얼 제품은 어떤 회사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 등을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주부들은 책을 들고 육류, 생선, 과일, 야채, 유제품 등 차례로 매대를 돌며 필요에 따른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데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도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 시중에 식품과 건강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 등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일방적인 지침들뿐이다. 정작 음식을 만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들고 가 읽을 만한 책은 없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여 그대로 출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열정을 가진 누군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만 한다면 훌륭한 우리 먹거리 가이드북이 탄생하지 않을까? 📖

일일이 분석했기 때문이다. 발로 뚫 만큼 프랑스의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품들의 이름과 성분 장단점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편하게 만든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우리는 그동안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해 왔다. 예를 들어 육류는 지방질이 많고 칼로리가 높으며 어류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등의 속설 등이다. 하지만 같은 어류라도 고등어는 99퍼센트가 단백질로 이루어진 반면 게살은 3분의 1의 당분과 3분의 1의 지방 그리고 3분의 1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 영화에 대한 감탄과 충격 안쪽 파솔리니

A GERMAN BOOK  
FOCUS ON

선우미정 | 번역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2년 전 독일에서다. 영화공부가 하고 싶었던 나는 만 2년을 꼬박 기다린 끝에야 비로소 대중매체학과로 전공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부푼 가슴으로 처음 들었던 영화학 강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퀴넬 박사가 강의했던 ‘파솔리니’였다.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영화감독이었지만 내게는 생소했던 이탈리아 사람 파솔리니를 나는 그렇게 만났다.

첫 수업 시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와 너무도 다른 예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밝은 화면과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부각되던 무표정한 얼굴들, 황폐하게 느껴졌던 중동의 메마른 땅, 관객의 마음까지 흔드는 불안한 핸드 헬드 카메라, 대중혁명을 선포한 지도자로 묘사된 예수. 처음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의 불편함과 답답함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가시지 않았고, 뭔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던 나는 집으로 가는 동안 벌써부터 다음주 수업시간을 걱정해야 했다. 그리곤 집에 도착하자마자 교재를 찾아두고 부지런히 읽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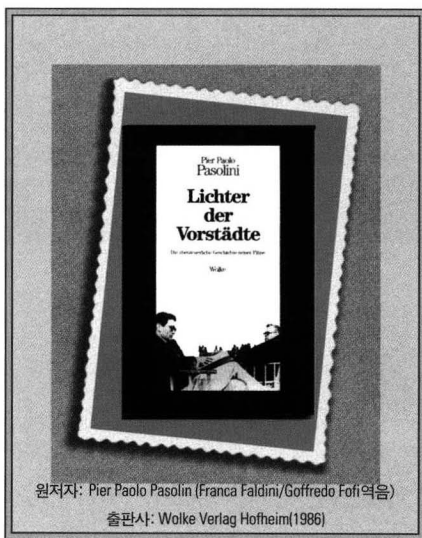
《주변부의 거룻배 *Lichter der Vorstädte*》는 당시 파솔리니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주교재였다. 영화를 눈으로만 좋아했던 내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하는 감탄과 충격을 주었던 파솔리니의 작품들은 한편 나로 하여금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도와줬다. 하지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솔리니 한 사람의 온전한 자기 사상이나 영화이론을 서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파솔리니 자신과 주변 친구들, 그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거나 공동 작업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이 어우러지고 인용된 살아 숨쉬는 책이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사진자료도 아주 풍부하다. 이처럼 다양한 진술과

사진자료를 통해 우리는 그가 몸담았던 시대와 그 시대 주변부 인물들에 대한 그의 관심, 파솔리니 자신의 무한 상상의 세계와 그의 사고체계에 대한 제법 생생한 그림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파솔리니의 조감독으로 일한 바 있으며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는 베르톨루치, 〈시민 케인〉으로 유명한 감독 오손 웰즈 등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기쁨과 일기처럼 내밀한 기록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글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문학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점차 영화로 넘어갔다. 영화야말로 생에 대한 나의 열정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 영화를 공부하면서 나는 영화란 우리 현실을 상징에 의해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다. (...) 그것은 나와 현실 사이에 그 어떠한 상징적이거나 관습적인 필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파솔리니 자신을 비롯한 그의 지인, 동료들의 생각과 기억을 엮은 이 책은 그 특성상 공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었을 것이다. 책이 집필될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영화에 관심을 갖고 파솔리니를 깊이 있게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차 한 잔 마시듯 대가의 영화를 이모저모로 감상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글서체**



원저자: Pier Paolo Pasolini (Franca Faldini/Goffredo Fofi역음)  
출판사: Wolke Verlag Hofheim(1986)

원제: Lichter der Vorstädte